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국제 현상설계 우수작



헤르마 주차 빌딩, 서울, 2010

이정훈의 헤르마 주차 빌딩이 최소한의 기능과 샌드위치 패널로 점철되던 주차 빌딩에 대한 고정 관념에 도전했다면, 한편으로는 건축계 지각 변동을 예고한다. 자동화 된 패널리제이션과 그에 따른 매스 프로덕션의 가능성을 중, 소규모 건축물에서 보여줌으로써, 건축설계 사무소의 시스템과 규모의 변화를, 그리고 건축 산업의 생산력 측면에서 건축 테크놀러지에 대한 핫 이슈를 이어 만들어낼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저가의 건축 프로젝트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매스 프로덕션의 시스템이 이정훈의 작업에서는 작은 규모의 건축물에서 그 가능성을 찾아 볼 수 있다. 그것은 헤르마 주차 빌딩에서처럼, 독특하면서도 다양한 입면 패턴, 얻을 수 있는 최대 한도의 공간 볼륨, 그리고 장소성

과 입지를 부각시키는 효과와 같은, 건축적인 아이디어에서 비롯되는 것들이다. 본질적으로는 건축의 표피성이 공간성으로 어떻게 구현될지, 앞으로 그의 작업에서 주목해봐야 할 것들이기도 하다.

어느 정도 합리적인 가격에 더 좋은 퀄리티를 요구하며 잠재돼 있는 건축 디자인 수요층에게 제대로 된 롤 모델이 부족한 현실에, 그의 전략은 잘 보이지 않았던 건축주 계층을 발굴하고 계발하며, 서울, 경기지역에 집중돼 있던 눈을 지역으로 눈을 돌려 그 가능성을 한층 높인다. 지역의 방치되어 있던 중, 소규모의 건축물에서 이러한 실험들을 통해 도시 중소규모 건축물의 업그레이드 역할은 주목할 만 하다.

프로필



이정훈은 성균관대학교에서 건축학과와 철학과를 졸업하였으며, 프랑스 낭시 건축학교에서 건축 재료학으로 석사를, 파리 라빌레트 건축학교에서 건축이론 석사를 취득했다.

시계루 반 유럽 사무소, 런던 자하 하디드 사무소에서 활동하였으며, 국립현대미술관 국제 현상에서 우수작, 전곡리 선사유적박물관 국제 현상에서 Merit Award 등을 수상했다.

2009년부터 JOHO Architecture를 설립하였으며 현재 성균관대학교에 겸임교수로 있다. 2010년 '젊은 건축가상'을 수상하였다.